

(주)마음모음 · 생명의전화 “함께 생명과 마음건강 지키자”

상담원 소진 예방 기부금 전달 · 자살 유족 치유프로그램 지원

생명의전화는 마음건강 프로그램 전문 기업 (주)마음모음(대표 박지은)과 함께 생명과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한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주)마음모음은 생명의전화 SNS상담 채널 '라임(LIME)'의 상담원들의 소진예방 힐링캠프 운영을 위한 기

부금을 전달하고, 자살 유족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을 재능기부 하는 등 마음건강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주)마음모음은 생명의전화 청소년 전문상담 채널 '라임(LIME)' 상담원들의 소진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1,3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 10월 16~17일 충북 증평 벨포레 리조트에서 진행된 '힘과 회복' 힐링 캠프 운영에 사용됐다.

캠프는 ▲명상 ▲자연 힐링 세션 ▲정서 회복 프로그램 등 상담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콘텐츠로 구성됐다. 상담원들은 잠시 현장을 벗어나 소진된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상담의 의미를 다시 정돈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담채널 라임은 생명의전화와 삼성융네트웍스가 함께 운영하는 청소년 전문 상담앱으로 2024년 6월 공식 오픈했다.

현재 80여 명의 상담원이 24시간 365일 청소년의 심리적 안전을 지키고 있으며, 오픈 이후 약 1년 4개월간 누적 16,000건의 상담을 기록했다. 이 중 2,437건은 위기 상황에서 긴급 구조로 이어진 고위험 자살 위기상담으로 상담원들은 청소년 생명안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주)마음모음의 이번 지원은 “상담원의 마음 건강이 곧 청소년의 생명선”이라는 메시지를 실린한 의미 있는 사회공헌 사례로 평가된다.

(주)마음모음은 이 외에도 생명의전화에서 진행되는 자살 유족 정기모임의 강사를 지원하여 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재능기부 하는 등 생명존중 및 마음건강 가치 확산에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고 있다.

(주)마음모음의 박지은 대표는 “생명의전화와 함께하며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의 진심을 깊이 느꼈다. 이러한 협력은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인 ‘마음의 건강과 회복’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상훈 생명의전화 원장은 “(주)마음모음의 따뜻한 지원은 청소년 상담원과 자살유족 모두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동안 마음모음 지원으로 진행된 청소년 상담채널 '라임' 상담원 힐링캠프



제8회 오방상에 수상하는 요셉나눔재단의 요셉의원은 1987년 개원한 이래 38년 동안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진료소를 펼쳐왔다.

정신을 계승, 실천하며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일구는 일에 묵묵히 헌신한 사람이나 단체를 찾아 그 공적을 기리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으로 (사)오방기념사업회(이사장 최영관)와 광주YMCA(이사장 나일도)가 공동으로 주관해오고 있다.



리종기 목사
빛과사랑교회

학 아래 선교와 나눔, 그리고 153 비전과 세계선교를 지향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사역을 펼쳐왔다.

리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원 졸업, 미국 하워드대학교 목회학 박사(D.Min), 예장 통합 광주동회회장, 총회 고시위원장, 총회부흥전도단

대표회장,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기독교TV에서 설교 사역과 칼럼 집필을 맡았으며, 현재 빛 명함 전도 연구원 대표로도 섬기고 있다.

최근에는 유튜브 '리종기TV'를 운영하며 영혼 구원, 명함 전도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복음 전파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리 목사는 사단법인 기독교화선교회에서 명함 전도 분야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박주정
한국고원대학교 연구교수

▶지나친 후에 이어서

또 선생이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거짓말을 한다면서 계속 때렸습시다.”

그 말을 듣고 잘못을 떠나서 장학사로서 몹시 불쾌했다.

“어머니, 어디 학교에 누굽니까?”

며칠 후에 그 학교를 방문했다. 장학사가 방문한다고 하니 학교에서는 좀 긴장된 눈치였다. 담임선생님을 상담실에서 만났다.

“선생님, 저는 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사 박주정입니다. 몇 달 전에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불충돌이 있었는데 친구들끼리 한 행동을 가지고 선생님께서 학생을 폭행했다고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없었다. 상담실에서 면담을 하고 나오는데 성규 엄마가 운동장에서 무릎을 꿇었다.

“장학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한이 풀어집니다. 성규가 선생님한테 맞고 왔을 때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학교를 찾아가려고 몇 번을 망설였는데 성규가 더 믿게 보일까 봐 못 왔습시다. 오늘 장학사님이 선생님께 훈계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시다. 어쩔 저렇게 제 마음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실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장학사님만 믿고 우리 성규 용연 학교에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규가 용연학교 지망생 1번이 되었다.

1호 입학 문성규-2

하십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순간적으로 학생이 계속 거짓말을 해서 손찌검을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이 학생이 이렇게 태어난 것도 가엾고 불쌍한데, 실령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감싸주고 안아줘야지 폭행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내일 교육청 감사팀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잘못도 했지만 성규 엄마의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도 강한 어조로 말했다. 성규 엄마는 이야기하는 동안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성규 엄마의 눈물은 사실 내 어머니의 눈물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내 어머니는 하소연할 곳도, 눈물을 보일 대상도

그 후 성규는 용연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안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곳 고등학교에서는 너무 착하고 좋은 학생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다. 몇 년 후에 성규가 대학교 진학할 무렵 어머니가 찾아왔다. 그때는 내가 장학관 시절이었다. 성규 어머니에게 장애인 판정을 받으라고 했다. 장애우 학생들에게는 특별전형으로 대학입시 혜택이 있었다.

성규는 우리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지금은 훌륭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다. 가끔 전화가 온다. 지금도 호칭이 장학사님이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 소중한 것 같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8회 오방상에 요셉나눔재단 ‘요셉의원’

시상식 12월 4일(목) 6시30분 광주YMCA 무진관

제8회 오방상에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4일(목) 오후 6시 30분, 광주YMCA 무진관에서 갖는다.

오방상운영위원회(위원장 이철우·심사위원장 김이수 전 한빛재판관)는 “요셉의원(요셉나눔재단법인)이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의 자립을 위하여 최선의 도움을 준다는 이념으로 1987년 개원

이래 38년 동안 노숙인, 난민, 외국인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국민층을 위해 무료 진료소를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섬김과 나눔, 생명과 평화를 위한 오방 최홍종 선생의 정신에 부합하여 제8회 오방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오방상은 광주YMCA설립자인 광주의 성자 오방 최홍종 선생의 뜻을 이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섬김과 나눔의

리종기 목사 은퇴 및 원로목사 추대식

12월 25일(목) 오후 2시30분 빛과사랑교회

리종기 목사 은퇴 및 원로목사 추대식이 성탄절인 12월 25일(목) 오후 2시 30분 빛과사랑교회(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 95번길 36) 예배당에서 열린다.

리 목사는 빛과사랑교회를 개척한 이후 40년간 목회사역에 헌신해

왔다.

빛과사랑교회는 1985년 4월 25일 리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설립했으며 현재 1,000여 명의 성도들이 출석하는 지역교회로 성장했다.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사랑’,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는 목회 철



노블요양병원



밝은마음병원



의료선교병원
나사렛요양병원

매일 드러지는 예배와
현대의학이 접목된 나사렛요양병원은
전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선교병원입니다.

진료
과목

뇌출혈, 뇌경색, 치매, 정신건강, 한방치료
재활치료, 노인만성질환전문

58228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 1550
직통 : 061)339-9905. FAX 061)334-2345
이사장 - 강봉규 목사 tel.010-2604-0560
상 담 - 김성기 사무국장(집사) tel.010-7676-6706
<http://peacemind.co.kr>

